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넘버 원'



순천시민은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을 올해 순천을 빛낸 최고의 뉴스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순천시를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뉴스선정은 시민 설문 조사와 직원 전자설문 등을 거쳤다.

2015

순천을 빛낸 10대 뉴스

1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올해의 최고 뉴스는 창조경제 모델로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의 정원문화를 선도한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다.

제1호 국가정원 지정으로 전 국민에게 새로운 정원문화를 확산시킨 데 이어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조경, 화훼, 힐링 등 정원산업과 연계한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관람객 500만 돌파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500만 관람객 돌파는 누적 수치이지만 단일관광지에 국민의 10% 이상이 다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최고 관광지, 최적의 생태체험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시민이 체험하는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3 전국 유일 3차례 도시대상 대통령상

순천시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2003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례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도시가 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한 기록이다.

4 순천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국내 최초로 전국 지방 공무원이 직접 투표해 선정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조충훈 순천시장이 시장 부문 CEO로 선정됐다. 전국 지방공무원 1000명이 직접 투표에 참가해 올해의 CEO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국가정원 지정과 도시첨단산업 유치, 도시재생사업, 9988쉼터 등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5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눈앞

순천시는 올 1월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선포하고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집중하고 있다. 불법투기 상습지 특별관리부터 원료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 수거함 및 거점 특별관리, CCTV 설치, 헌옷 수거함 일제 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6 지속가능 교통도시 대상 수상

순천시는 전남 동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차량 통행량과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로 인식돼 왔다. 순천시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해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분야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등에서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인구 30만 이하 41개 자치단체에서 1위에 올랐다.

7 사감운동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

올해는 시민 감성에너지 충전을 위한 '순천형 힐링하고' 운동인 사감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은 한해다. 4대 종교단체와 MOU 체결 및 초등학교 교사 대상 사감운동 연수, 사감운동 플래시몹, 등굣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릴레이 사감운동 등 현장활동을 추진해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8 9988쉼터 친화형 쉼터로 각광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된 9988쉼터는 지역사회 친화형 쉼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관련기관 등과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주거, 복지, 건강시스템의 맞춤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올해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은 28만 순천시민들과 함께 만든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관람객 500만명 돌파.

시민 행복을 위한 창조시책을 펼친 점 등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경관 '순천만'을 보전하고 항구적 보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에코벨트 개념으로 조성한 '순천만정원'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전문가로부터 국내 최고 경관으로 공인받았다.

10 시민주도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이후 높아진 도시 브랜드에 맞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주도형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봉사단체 로타리 클럽의 양심운전자 찾기, 교통질서지킴이 실천다짐 순회전사 릴레이, 길거리 게릴라 퍼포먼스 '우리동네가 달라졌어요'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으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밤이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LED조명 추가 설치

연말연시를 맞아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지면서 야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는 한옥골방을 중심으로 표구철 설치미술가의 구름물고기 등(總)을 120여점을 지난 12월 초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8마의 선물', '꿈으로의 비행', '초콜릿 선물' 등 3가지 조명 포토존을 새롭게 설치했다.

'8마의 선물'은 팔마문화제 기념으로 문화의 거리에 상주하는 예술작가들의 아이디어로 청소년수련관 앞에 설치된 투명한 선물상자 모양의 조명물이다. LED 조명을 달아 새해 희망을 담은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을 형상화했다.

'꿈으로의 비행'은 옛 중앙파출소 앞 사거리에 설치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본딴 조명물이다. 비행기에서 나무로 이어지는 LED 조명으로 아담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연출했다.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설치된 '초콜릿



순천시 옛 중앙파출소 앞 사거리에 설치된 '꿈으로의 비행' 조명물이 화려한 LED 조명을 뽐내고 있다.

선물'은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해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진 조명물로 야간에 더 돋보이도록 반짝이는 LED 조명을 달았다.

이들 야간 경관 조명은 내년 1월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며, 점등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대, 실습용 항공기 엔진 확보...공군이 기증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가 공군으로부터 실습용 항공기 엔진을 기증 받았다.

22일 순천대에 따르면 최근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소장)은 직접 순천대를 방문해 박진성 순천대 총장에게 항공기 엔진을 전달했다.

기증받은 엔진 명칭은 'J85-GE-13 Turbo Jet'으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에서 개발돼 지난 1959년 최초 실전 배치된 모델이다. 길이 308cm에 직경 45cm 규모의 이 엔진은 4080lbs의 추력을 자랑한다.

이 엔진은 한국 공군이 1965년 도입해 일명 '자유의 투사(Freedom Fighter)'

로 불리며 F-5A/B 전투기와 A-37 등에 장착됐다. 최고 속도 마하 1.4(시속 1916km)에 최고 상승 고도는 1만 5400m(5만 525피트)이며, 폭탄과 기관총, 미사일로 무장하고 지난 2005년 퇴역하기까지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하늘을 수호했다.

이번 항공기 엔진 기증식은 정표수 초빙 교수(공군 고장 출신)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정표수 교수는 지난 6월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항공기 엔진의 필요성을 공군 본부에 전달했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항공기 엔진의 순천대 양도가 결정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동파 방지 기동처리반 운영

순천시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기동처리반 운영

- 동파 방지대책 운영으로 수도불안 정적 공급 시민생활불편 해소 -

순천시는 21일 "겨울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와 급수관 결빙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상수도 비상근무 3개조 38명을 편성해 급수불편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정원 나무 5만여주

벗길 감싸고 월동준비 끝

순천만국가정원은 22일 "겨울철 나무의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 월동 준비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원 내 추위에 약한 후박나무, 만나부 등 난대수종과 태극정원의 코코스야자 등 아열대수종, 스페인정원의 유자나무 등 5만여 주에 벗길 감싸주기 작업을 하고 지면에는 우드칩을 깔아 보온성을 높였다. 또 키가 작고 모아 심어진 나무에는 방풍막을 설치해 겨울바람에 대비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겨울을 테마로 한 조



순천만국가정원 내 태극정원의 아자수들이 벗길 감싸주기 작업으로 겨울나기에 들어간 모습.

형물(이글루, 산타, 눈사람 등)로 포토존을 설치하고 눈썰매타기, 군고구마제

힘 등 겨울철 체험행사를 진행 중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제5회 지리산남원바래봉 눈꽃축제

2016.1.1(금) ~ 2.14(일)

주 제 _ 겨울 ·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장 소 _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동산, 눈꽃등반

주 관 _ 운봉애향회(눈꽃축제위원회)

후 원 _ 운봉읍 이장단 · 사회봉사단체

남원시